

5월의 기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1. 가정의 달 5월에 부는 생기 발랄한 상큼한 바람에 춤추는 초록물결의 잎사귀들처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정신과 삶 속에도 깃들게 하시며, 혹여나 가슴을 짓누르는 나쁜 생각들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 품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움이 사방을 두르고 있는 5월에 저희도 안팎으로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2. 긍정이 긍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매사에 임하게 하시옵고 어렵고 힘들다고 외치는 이 시기에도 성령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의 마인드로 임하게 하심으로 좋은 결과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긍정의 믿음으로 매사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3. DCEM 총재 故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DCEM가족들은 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복음전파에 더욱 각고의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주님, 전 세계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순간이 도래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4. 저희가 지정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는 효도의 언약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대로 한평생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 DCEM회원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궁극적인 삶의 목적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8:14)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행복의 기초적인 요소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은 영원한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목적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 8:14).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안에 떠는 자에게 평안을,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잠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삶의 목적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삶의 분명한 목적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명예가 더욱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 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2023년 해외성회

<싱가포르 축복성회 '조용기 목사님 추모예배'>



싱가포르 최대 교회인 시티하베스트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추모예배를 기념해 싱가포르성회가 DCEM 주관으로 선택 컨벤션 센터 메인홀에서 3월 25~26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성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과 부흥이 임하길 소망하여 이영훈 담임목사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개최됐다.

양일간 열린 성회에는 성전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시티하베스트 찬양팀의 파워풀한 워십과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열기로 가득 찬 성령 축제의 현장이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감격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한마음이 되어 싱가포르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성회에는 성회를 주관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를 비롯하여

고영용 부목사, 권일두(국제사역CGI국장) 임태욱(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정홍은(순복음성동교회) 목사, 최진택 방송국장, 순복음동남아시아총회 선교사들도 함께했다. 한편 첫째날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는 예배에 성도들은 DCEM에서 준비한 조용기 목사의 추모 영상을 시청하며 순복음의 영성으로 세계 복음화에 한 획을 그은 조용기 목사를 함께 추억했다.

콩히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와 시티하베스트처치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며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기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싱가포르와 아시아 전역에 부흥의 불씨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티하베스트처치는 1989년 콩히 목사와 아내 선호 사모가 개척한 교회이다. 1982년 고등학생이던 콩히는 조용기 목사가 싱가포르국립경기장에서 인도한 성회에 장에

인 봉사자로 참석해 조용기 목사의 선포된 신유기도에 앞에 있던 장애인에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그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이후 그는 조용기 목사의 구역 시스템을 도입해 싱가포르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모임을 가지며 교회의 큰 부흥을 이뤄 싱가포르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다.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는 시티하베스트처치에는 매주 2만여 명의 청년들이 다음세대 부흥을 견인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꾸며 이를 이루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다.

이번 싱가포르 성회를 시작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부흥의 파도가 아시아 전역에 밀려오고 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령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7~18절)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1.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첫째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과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 있지만 그 속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두려운 것이 없었는데 죄를 짓자 불안과 공포가 그 마음속에 꽂 들어찬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지에 죽음의 세력이 들어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이 유일하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공활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 6: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2.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둘째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꿈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면,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리 내어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십자가 밑에 나아가 새 생명을 받으라

셋째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용서와 의의 은혜를 구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성결함과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와 건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러한 오중복음을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 11:2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 삶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보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결은 꿈과 믿음 그리고 창조적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늘 오중복음을 꿈꾸고 믿고 입술의 말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강화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꿈을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속에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말하면 밖에 나와서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말로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오중복음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산의 신학과 목회

- 말씀과 기도의 영성 -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영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체험이며, 좁은 의미에서 영성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영성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은 기독교 영성을 이끌어온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주제이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영성훈련 방법을 개발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영성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에 근본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각기 다른 기도 훈련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독교 영성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기독교 영성은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고 영적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영적성숙을 위해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할 것과 “살아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4차원의 영성도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훈

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성훈련이었다면, 4차원의 영성도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성훈련이다. 4차원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의 영성’에 그 신학적 혹은 신앙적 바탕을 두고 있다. 4차원의 영적인 원리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 4차원의 영적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두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어진 영적 법칙이다. 성경은 3차원의 물질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세계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4차원의 영적세계를 접하게 되고 4차원의 영적세계 안에 존재하는 4차원의 영성을 발견하게 된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4차원, 즉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4차원의 영적언어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꿈과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생겨난 꿈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큰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기독교 영성과 4차원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한 영성수련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된 말씀’(레마)으로 순간마다 들려질 때 모든 성도는 3차원의 세계를 이끌어 가는 4차원의 ‘생각’, ‘꿈’, ‘믿음’, ‘말’을 소유할 수 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